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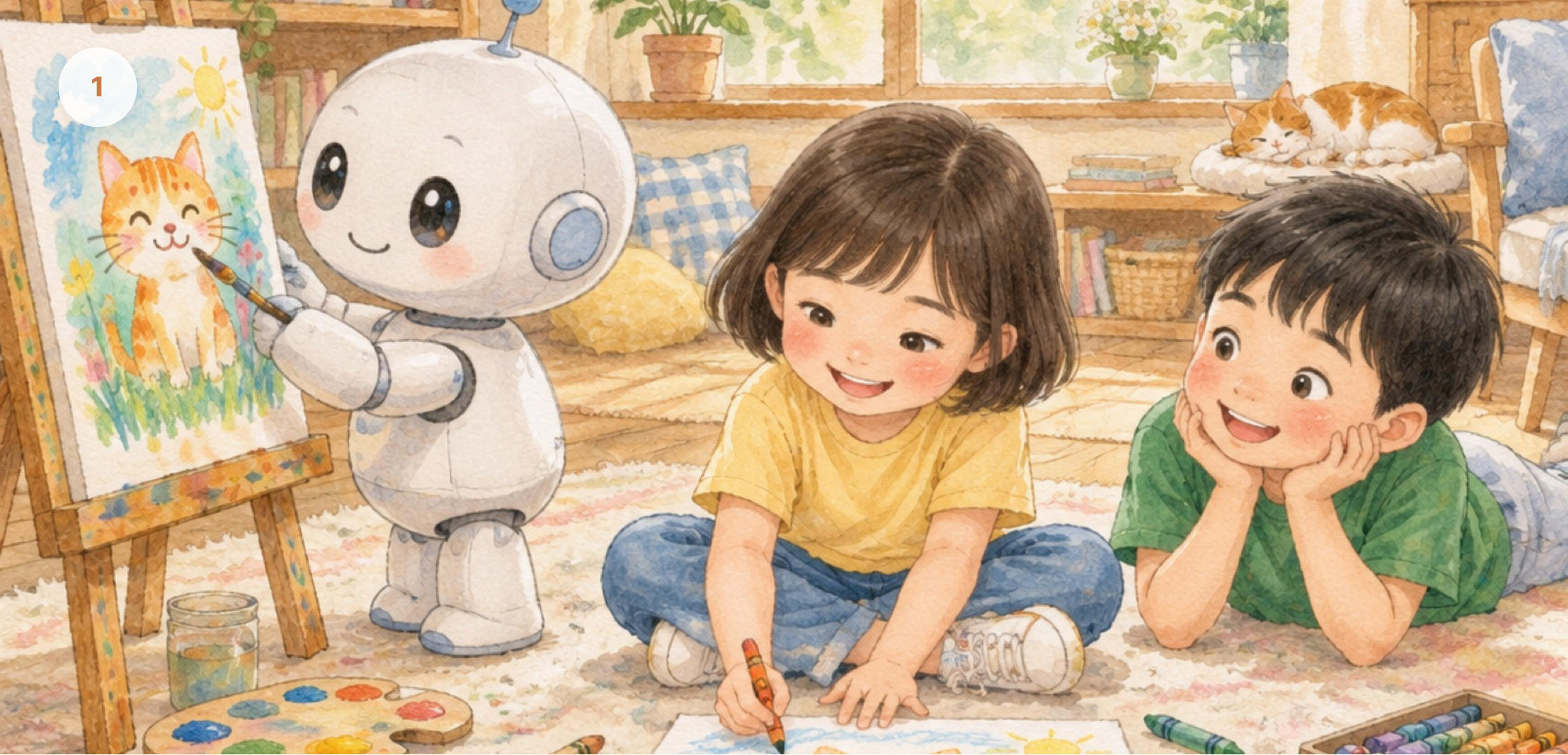


KIDS RUNNING

아무도 안 가 본 곳에 뭘 가지고 갈까?

로봇이 일을 다 해 주는 세상에서, 사람은 무엇을 할까?
「AI 시대 자산격차」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보는 그림책

키즈러닝 엄마 영차! · 5회차 · 2026. 10. 14



그림도 그려 주는 친구

요즘 똑똑한 기계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요. 사람이 그린 건지 기계가 그린 건지 헷갈릴 만큼요. 어른들은 이제 “그리는 건 다 됐다”고 말해요. 그런데 네가 그린 그림에는 네 마음이 들어 있잖아요.

💡 “로봇이 그린 그림이랑 네가 그린 그림, 뭐가 달라?”



심부름도 대신 가 줘

이제 기계는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“이거 좀 사다 줘” 하면 정말로 사 와요. 사는 쪽도 로봇, 파는 쪽도 로봇. 가게에서 로봇끼리 만나 “안녕, 이거 주세요” 하는 날이 온대요.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?

🗣️ “로봇한테 심부름 보내면 넌 그동안 뭐 할래?”



잠도 안 자고 일하는 친구

로봇은 잠을 안 자요. 밥도 안 먹어요. 모두가 잠든 밤에도 혼자 일할 수 있어요. 일을 정말 많이 하겠죠? 그래서 어른들은 고민해요. “로봇이 이렇게 일을 다 하면, 사람은 무슨 일을 하지?”

💡 “잠도 안 자고 일하면 좋을까, 힘들까?”



먼저 가 보는 아이

아무도 가 본 적 없는 새 땅이 생겼어요. 한 아이는 책을 읽으며 어떤 곳일까 오래 생각해요. 다른 아이는 배에 먼저 올라타요. 누가 맞을까요? 둘 다 멋져요.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곳은, 가 봐야 알 수 있대요.

💡 “넌 먼저 가 보는 편이야, 알아보고 가는 편이야?”



처음 가 본 숲에서

갑자기 처음 보는 숲에 툭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. 지도도 없고, 아는 길도 없어요. 어떤 박사님이 그랬어요.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“새로운 곳에서도 금방 길을 찾는 힘”이라고요.

💡 “처음 가 본 곳에서 제일 먼저 뭐 할 거야?”



울고 싶어도 한 번 더

박사님이 하나 더 말했어요. “힘들어도 울지 않는 힘, 버티는 힘”이 있어야 한대요. 울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. 울고 나서 다시 일어나 보는 것이에요. 달리 기랑 똑같아요. 넘어지면 툭툭 털고 다시 뛰면 되니까요.

💡 “울고 싶었는데 끝까지 한 적 있어?”



나무의 주인이 된다는 것

열매를 따 주고 용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. 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, 다 자라면 해마다 열매를 줘요. 어른들은 이것을 “주인이 된다”고 불러요. 일하는 것만큼, 심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대요.

🗣️ “네가 심어서 키워 보고 싶은 건 뭐야?”

부모님께 · 이 그림책을 보고 나서

이 그림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영상 속 두 전문가도 “아무도 모릅니다”라고 했어요.

그러니 아이에게 무엇이 되라고 알려주지 마시고, 아이가 말할 때 그냥 들어 주세요.

🍲 “그동안 넌 뭐 할래?”를 물어봐 주세요. 로봇이 대신 해 주는 일보다,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합니다.

🍲 먼저 해 보게 해 주세요. 오래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, 아무도 모르는 일은 가 봐야 압니다.

🍲 힘든 걸 끝까지 해 본 날을 크게 알아봐 주세요. 잘한 날보다 버틴 날을요.

🍲 배우던 게 바뀌어도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. 갈아타는 것도 힘이라고 합니다.

🍲 ‘주인’ 이야기를 한 번 나눠 보세요.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이야기면 충분합니다. 돈 이야기가 아니어도 돼요.

키즈러닝 엄마 영차!

변화하는 AI 세상에 불안해하지 않게, 엄마들과 함께 대화하는 AI 찾자리

문의 @kids_running_kr

본 자료는 참석자 가정의 학습용입니다. 외부 공유·재배포를 삼가 주세요.